

VI. 향후 과제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금리의 변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으며 보험회사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이차역마진이 라는 것으로 다가왔다. 현재 금리는 안정된 상태에서 서서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고금리 시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차역마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 보고서에서는 살펴보았다. 대응방안으로서 크게 보유계약의 측면에서 상품 전환이라는 방법과 신계약 측면에서 표준이율 조정을 언급하였다.

상품전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환이라는 옵션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들 간의 차이점과 계량화하기 힘든 "고객의 니즈의 만족"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환상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객니즈의 만족에 대해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예정이율 인하를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차역마진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정이율이 실제금리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이율을 실제금리보다 낮게 설정하여야 하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단지 한 해 동안만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보장기간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금리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 금리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설정하여야 하나 실제적으로 시장경쟁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예정이율 설정방법은 시장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이론적인 방법에 그칠 수 있다.

이차역마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 즉, 사차익이나 비차익에서 이익이 실

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차역마진만을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전체손익의 관점에서 손익을 산출하는 즉 현금흐름 방식으로 상품 가격산출 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금리의 추정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금흐름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대비해서 시장금리의 속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금리시나리오 생성 및 분석에 관한 연구가 향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차역마진의 발생이라는 것은 리스크관리의 측면에서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금리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상품포트폴리오와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